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신약개발 수익성 동향

Emily May | UK Centre for Health Solutions 외 3인



이해섭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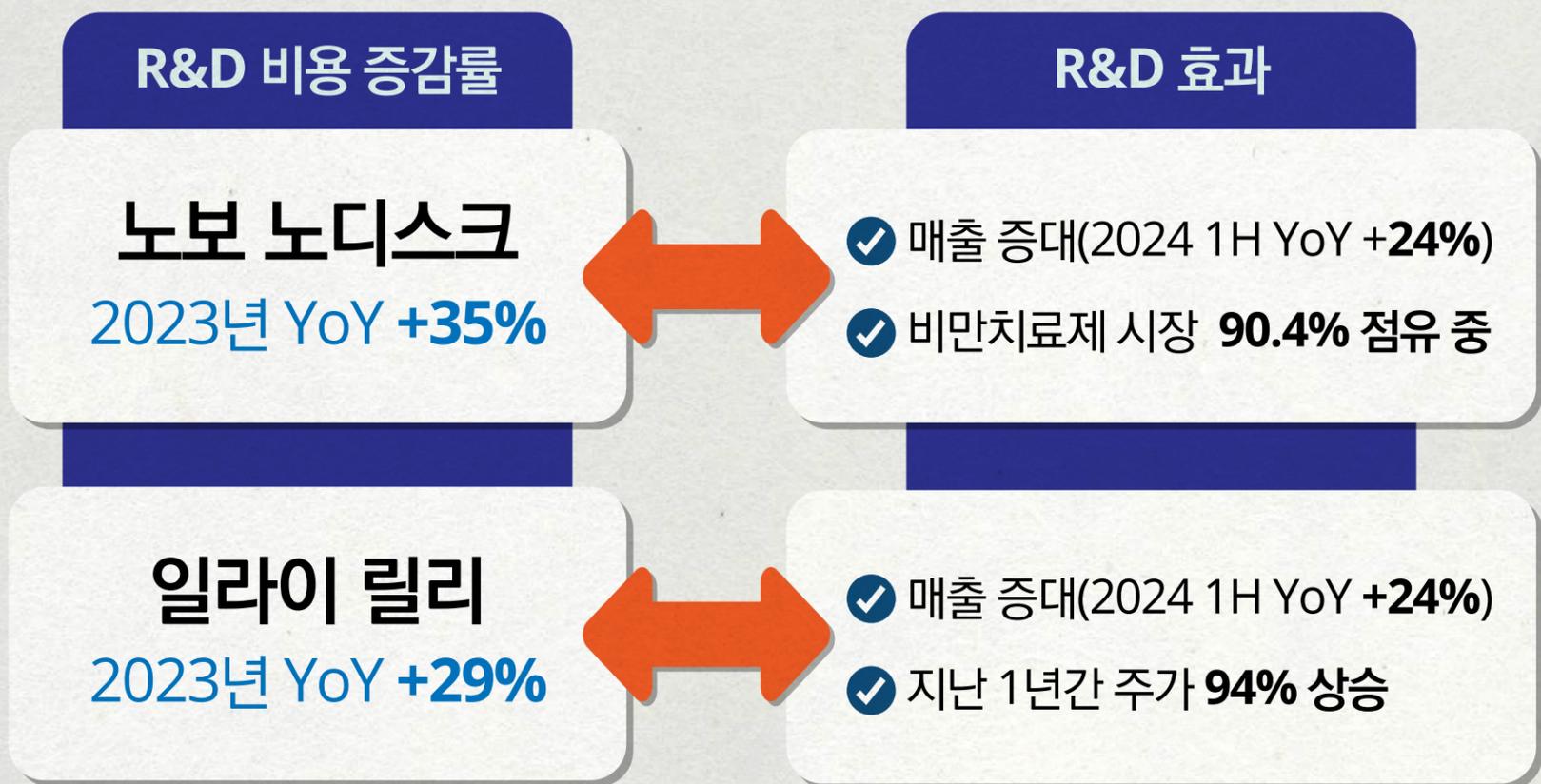


최근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 출시 등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20대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딜로이트 분석은 연구개발 생산성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특허 만료, 기술 발전, 경쟁의 압박 속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고 수익성 있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동향



최근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비만약 개발로 R&D 비용 증가하며 매출, 주가 상승, 시장 점유 효과로 이어짐



제약바이오 기업들,
R&D 투자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한 고민 증가

보고서 개요

20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 ✓ R&D 투자 수익률 동향
- ✓ 파이프라인 구성
- ✓ 혁신의 출처 조사
- ✓ 주요 전략적 시장 진출 주제 탐구
(M&A, 생성형AI, 비용 절감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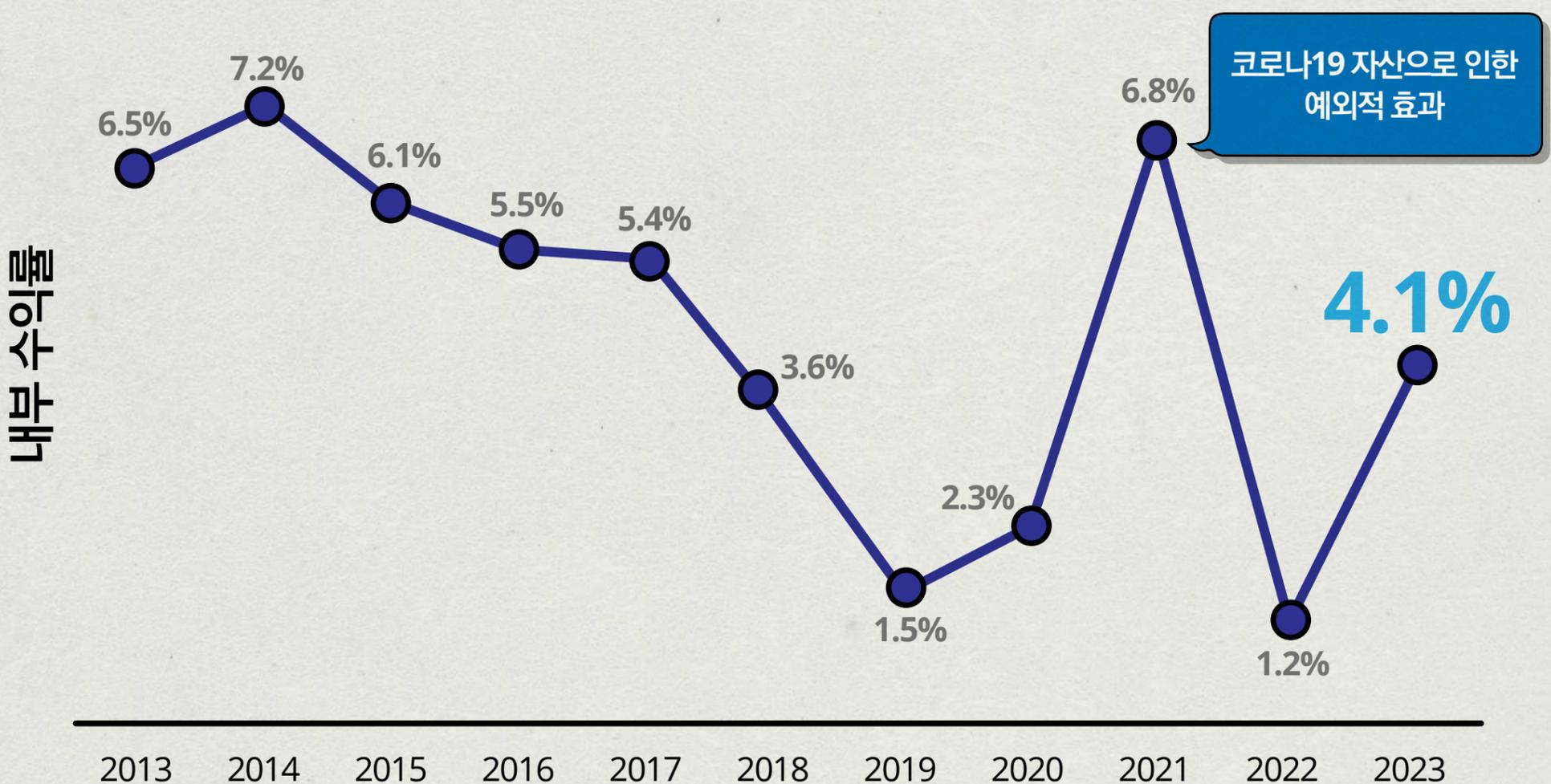
방법론

- ✓ 20대 기업의 후기단계 파이프라인 자산의 수익성(내부수익률) 측정
- ✓ R&D 리더 10명 대상 인터뷰 실시
- ✓ 딜로이트 R&D 분야 전문가 자문
- ✓ 문헌 조사

신약개발 수익성 동향

- ✓ 후기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예상 평균 내부수익률이 지난해 1.2% 기록 후 올해 **4.1%로 상승하며 R&D 생산성의 장기적인 하락세에서 회복의 기미** 시사
- ✓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 전염병 백신,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고가치 자산이 등장하고 분석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부수익률 상승**
- ✓ **비용 압박과 최대매출액 감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예상 R&D 투자수익이 자본 비용보다 훨씬 낮은 상황**

후기단계 파이프라인 수익률



R&D 비용 상승

20대 기업 R&D 지출 전년대비 4.5% 상승

2021년

1,392억 달러



2022년

1,455억 달러

요 인

규제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인플레이션 영향

임상시험의 복잡성 증가

해결방안 : R&D 효율성 제고

✓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

- 활용 사례: 표적 발견 가속화, 시험 참가자 모집 및 유지, 환자 데이터 집계 및 분석, 문서 생성 자동화, 규제 서류 작성 등

✓ 임상시험 경험 재편

- 인간 중심 접근방식
- 원격 임상시험 요소 도입해 접근성, 유연성, 다양성 강화

✓ 컴플라이언스 최적화



최대매출액 감소

파이프라인당 평균 최대매출액은
전년대비 2,700만 달러 감소

2022년

3억8,900만 달러



2023년

3억6,2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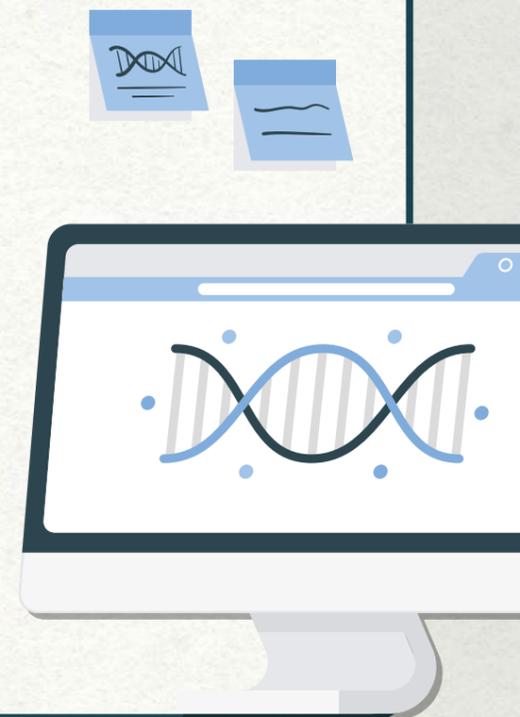
요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 약가 인하 협상 피하고자 적응증 추가 및 약품 종류에 대한 기업 고민 심화
- ✓ 신약개발의 인센티브 및 수익성 감소 → 혁신 저해

해결방안 :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

- ✓ 규제 개혁의 영향 이해
- ✓ 초기부터 신약상업화팀 참여 유도
 - 개발 초기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인사이트 제공 및 상업적 가치 결정
- ✓ 지속가능한 파이프라인 보충 전략 채택
 - 유연한 외부(M&A, 라이선스 등) / 내부 소싱 전략 구현
 - 레드오션인 치료 영역 이외의 기회 모색



생산성 향상 전략

✓ 생성형AI의 혁신적 잠재력 활용

- AI 기반 약물 발견
- 규제 정보 파악 및 서류 제출
- 임상시험 참가자 경험 제고 등

✓ 초기단계 R&D 데이터 활용

- 초기 단계에서 양질의 후보물질 양 증가
- 조기에 안전성 및 효능 파악해 진행/중단 의사결정 가능
- 임상시험 참가자의 디지털 트윈으로 대조군 시뮬레이션 가능

✓ 레드오션 이외의 치료 분야 및 모달리티 모색

- 현재 편중되어 있는 종양학 및 희귀질환 이외 치료 분야 모색

딜로이트 산업 전문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략개발, 시장조사, Data Analytics 외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이해섭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411
@ harlee@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김영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432
@ youngpkim@deloitte.com

최원정 상무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03
@ wonjechoi@deloitte.com

편제성 이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문상식 이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
컨설팅 부문



☎ 02 6676 3671
@ sangsmoon@deloitte.com

Data Analytics

조민연 파트너

IT/Data Analytics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990
@ minycho@deloitte.com

인공지능(AI)

조명수 파트너

디지털 경영관리 서비스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2411
@ mjo@deloitte.com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 | 컨설팅 부문



☎ 02 6676 2732
@ chanjung@deloitte.com

정창모 수석위원

인공지능 & 데이터 | 컨설팅 부문



☎ 02 6676 3288
@ changj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인공지능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67
@ sholee@deloitte.com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길기완 대표

경영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1585

@ kkil@deloitte.com

남상욱 파트너

M&A그룹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537

@ sangnam@deloitte.com

송준걸 파트너

기업 구조조정 및 가치개선 그룹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351

@ joosong@deloitte.com

박주형 파트너

가치평가 재무모델링 그룹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038

@ joohpark@deloitte.com

김재환 파트너

부동산인프라그룹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032

@ jaehwkim@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h@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